

##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나19631(본소), 2014나19648(병합), 2014나19655(병합), 2014나19662(반소)]

###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다만, 원고 25는 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이에스디케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민현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가합63771(본소), 2013가합57233(병합), 2013가합72478(병합), 2014가합7105(반소) 판결

【변론종결】2014. 10 16.

### 【주문】

】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동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 중 같은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부분과 같은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같은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같은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원고들은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나, 피고가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원고들의 직접적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아닌 원고들의 피용자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고 원고들도 이를 전제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원고들의 직접적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아니라 원고들의 피용자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사용자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무로 보아 이처럼 선해한다).[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항소취지[원고들{원고 (주)동방(이하, '주'는 생략한다) 제외}] 제1심판결 중 원고(동방 제외)(이하, '나머지 원고'라고 한다)들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반소에 관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피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별지2 항소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제1심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

항소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제1심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원고들은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나, 피고가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원고들의 직접적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아닌 원고들의 피용자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고 원고들도 이를 전제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원고들의 직접적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아니라 원고들의 피용자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사용자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무로 보아 이처럼 선해한다).[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항소취지[원고들{원고 (주)동방(이하, '주'는 생략한다) 제외}] 제1심판결 중 원고(동방 제외)(이하, '나머지 원고'라고 한다)들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반소에 관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피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별지2 항소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제1심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 항소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제1심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원고들은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나, 피고가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원고들의 직접적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아닌 원고들의 피용자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고 원고들도 이를 전제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원고들의 직접적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아니라 원고들의 피용자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사용자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무로 보아 이처럼 선해한다).[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항소취지[원고들{원고 (주)동방(이하, '주'는 생략한다) 제외}] 제1심판결 중 원고(동방 제외)(이하, '나머지 원고'라고 한다)들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반소에 관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피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별지2 항소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제1심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 항소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제1심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원고들은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나, 피고가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원고들의 직접적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아닌 원고들의 피용자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고 원고들도 이를 전제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원고들의 직접적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아니라 원고들의 피용자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사용자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무로 보아 이처럼 선해한다).[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항소취지[원고들{원고 (주)동방(이하, '주'는 생략한다) 제외}} 제1심판결 중 원고(동방 제외)(이하, '나머지 원고'라고 한다)들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반소에 관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피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별지2 항소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제1심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 항소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제1심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원고들은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나, 피고가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원고들의 직접적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아닌 원고들의 피용자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고 원고들도 이를 전제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원고들의 직접적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아니라 원고들의 피용자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사용자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무로 보아 이처럼 선해한다).[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항소취지[원고들{원고 (주)동방(이하, '주'는 생략한다) 제외}} 제1심판결 중 원고(동방 제외)(이하, '나머지 원고'라고 한다)들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반소에 관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피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별지2 항소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제1심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 항소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제1심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원고들은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나, 피고가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원고들의 직접적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아닌 원고들의 피용자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고 원고들도 이를 전제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원고들의 직접적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아니라 원고들의 피용자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사용자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무로 보아 이처럼 선해한다).[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항소취지[원고들(원고 (주)동방(이하, '주'는 생략한다) 제외)] 제1심판결 중 원고(동방 제외)(이하, '나머지 원고'라고 한다)들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반소에 관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피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별지2 항소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제1심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 항소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제1심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 【이유】

#####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포인트아이(주)(이하, '주'는 생략한다)가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과 포인트아이의 피용자인 직원들이 피고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로서 원고들과 포인트아이에 대하여 그 직원들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고의 컴퓨터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 동방과 포인트아이의 본소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일부와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 동방과 포인트아이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가 패소부분(다만 피고는 그 일부에 한정하여)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제1심판결 중 포인트아이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그대로 분리하여 확정되었다).

###### 나.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전제된 사실관계

#### 【이유】

#####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포인트아이㈜(이하, '㈜'는 생략한다)가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과 포인트아이의 피용자인 직원들이 피고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로서 원고들과 포인트아이에 대하여 그 직원들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고의 컴퓨터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 동방과 포인트아이의 본소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일부와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 동방과 포인트아이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가 패소부분(다만 피고는 그 일부에 한정하여)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제1심판결 중 포인트아이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그대로 분리하여 확정되었다).

#### 나.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전제된 사실관계